



균형발전
으라차채 원도심

대전방문의 해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6명 떴다

공중보건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천사 — 전사 (Angel-Soldier)

이용백

2011

싱글채널비디오[Ed.3/7]

23분(2012 수집)

한국 비디오 아티스트 1세대를 대표하는 이용백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화면은 ‘천사’의 환유물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다. 절대로 시들지 않을 듯한 선명한 색채의 꽃들 속엔 ‘천사’를 가장한 ‘전사(戰士)’가 꽃무늬 패턴의 군복을 입은 채 앞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다. 비록 화면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용백의 〈천사-전사〉는 알맹이 없는 가짜 뉴스들로 진실이 위협받는 오늘날의 인터넷 문화와 대립VS평화가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고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띤다. 미술의 역사에서 장르화가 흥했던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정물화 속 아름다운 꽃은 ‘바니타스(vanitas)’, 즉 지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헛되다는 교훈의 상징이기도 했다.

17세기 꽃정물화에서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꽃’이 곧 끝나버릴 삶의 유한성을 고발했다면, 이용백의 작품 속의 ‘꽃’은 평화, 사랑, 껍질 등이 사실은 전쟁, 대립, 진실 등의 상반된 것들과 맞닿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글쓴이 김주원은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일본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초청 펠로우, 200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를 지냈다. 「1945년 이후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담론 연구」(2016)로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한국현대예술사대계 V』(시공사, 2005/공제)가 있다.

Contents

March | Vol. 192

- 04 **균형발전**
으라차차! 원도심
- 10 **스마트시티**
주차는 더 편해지고, 119출동은 더 빠르게
- 12 **대전방문의 해**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6명 뒀다
- 16 **공중보건**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 20 **글로벌대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착공
- 22 **시민청사**
대전시청사에 가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 26 **대전시의회**
3개 시도의회 혁신도시 지정촉구 등
- 28 **개소소식**
새봄과 함께 대문이 활짝~
- 30 **사회지표**
10명 중 6명 '대전시민이어서 자랑스럽다'
- 32 **현장 이곳**
도심 속 야생동물의 피난처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36 **대전역사**
대전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3·8민주의거 60주년
- 38 **대전사람**
대전 소식 전하는 갯머리 언니 최해정 씨
여성 취업 성공의 달인 백운순 상담사
대전 초대 총괄건축가 이성관 대표



- 42 **대전이야기**
지역 청소년 사랑 같이 나눠요
'평송청소년장학회'
대전 시민과 친구되고 싶은 '아미치양상블'
대전 또 하나의 이름, 클래식기타 도시
- 45 **시민강좌**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등
- 46 **공유공간**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내동 '내동네 부엌'
- 47 **대전맛집**
중구 은행동 한발칼국수
- 48 **지역마당**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등
- 50 **4·15 총선**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 51 **한눈에 쏙**
트램 건설 추진상황 Q&A
- 52 **시정데스크**
시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 등
- 54 **독자마당**
수필, 제언, <It's Daejeon>을 읽고
- 56 **문화광장**
합창음악극 '단재의 훈' 등
- 58 **그리GO 대전**
2월호 목척교와 대전천 선정작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저작권 허락을 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전광역시의 공식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 전화 270-2631~3, 이메일 ksjsb@korea.kr, 이츠대전 홈페이지

발행일 2020년 3월(통권 192호) 발행처 대전광역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권경민 홍보기획팀장 임한모 편집장 김순조 편집위원 임연희 허용주 사진 편집위원 최용성 편집디자인 ㈜봄인터랙티브미디어 / 구수완 일러스트 이슬기 인쇄 동인문화사 우송 (주)좋은하루

표지 이야기



보문산성에 불뿔이 가득히 내려 앉았습니다. 보문산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그 옛날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드론촬영 김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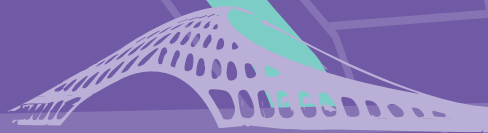
균형발전

제2시립도서관

도심양산시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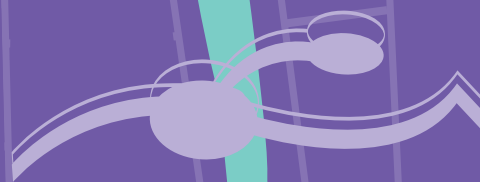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중앙로지하상가 연결



쌍생주차장 (지하)



커플브리지

‘으라차차’ 원도심

대전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원도심의 도시재생 동력으로 작용할 중앙로프로젝트 사업들이
2020년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가운데 커플브리지 완공,
상생주차장과 제2시립도서관 조성도 가시화되는 등
원도심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 허용주

동구 중동 인쇄골목에는 총 230억 원이 투입된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 들어서고 목적교 아래로는 신규 지하상가가 연결된다. 중앙로 지하상가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앙로 프로젝트’사업이 속도감을 내면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전천 동측과 서측을 잇는 일명 커플브리지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원도심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줄 400면 규모의 원도심 상생주차장도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한편 원도심의 문화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제2시립도서관도 동구 가양동에 조성된다.



도심형산업
지원플랫폼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커플브리지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제2시립도서관

인쇄·웹툰 등 도심형산업 지원하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인쇄업 등 원도심의 지역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고부가가치산업 도입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플랫폼인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 중동에 들어선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은 경제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통합·연계적 재생사업을 구축해 지역 자생력을 증대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곳으로,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해 내년까지 6년에 걸쳐 총 230억 원(국비 115억 원·시비 115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이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은 플랫폼동(연면적 5,336.24㎡, 지하 2층, 지상 5층)과 주차동(연면적 7,440.7㎡,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장 194면)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지어진다.

플랫폼동의 1층에는 인쇄박물관, 카페, 로비가, 2층에는 뷰티케어운영지원실과 교육장이 들어서고 3층엔 강당과 회의실, 4층엔 인쇄기획사무실, 5층엔 웹툰운영사무실과 교육실 등이 조성된다.

특히 시는 인근지역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쇄거리’와 사업을 연계해 원도심 전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꾀해 청장년층의 창업 및 고용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구 중동 9-5, 10-16, 308-4 일원



대전천으로 단절된 지하상가가 연결된다고?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



중앙로 목척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신지하상가(중앙로지하상가)와 구지하상가(역전지하상가)가 연결된다. 대전시는 원도심의 주요 거점공간인 대전역과 옛 도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앙로 입체보행환경 구축으로 원도심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단절되어 있던 신·구지하상가를 연결한다.

지난해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지난해 연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경 준공 예정으로, 총 112억 원(국비 56억 원, 시비 56억 원)이 투입된다. 대전천 아래로 140m의 지하보도가 연결되며 이 공간에는 창업과 전시, 휴게공간 등이 함께 조성된다.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는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설치, 토토즐페스티벌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지만, 역전 지하상가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신구 지하상가가 연결되면 비교적 상권이 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화합을 나타낸 다리는 어떤 모습일까?

커플브리지



대전천 동측과 서측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다리가 탄생한다. 일명 커플브리지. 커플브리지는 남과 여,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합 등을 형상화한 다리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문화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에 걸쳐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월 완공되는 커플브리지는 길이 83m, 폭 4~6m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에스(S)자형 보도교 2개가 서로 연결되며 다리 중간에 원형무대와 안개가 분사되는 이벤트공간 등이 들어선다. 발광다이오드(LED)가 설치돼 야간에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 또 하나의 야경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커플브리지 주변에 커플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 줄기가 꺾배기처럼 엉켜 있는 단풍과 버드나무는 만남과 사랑을 상징한다.

대전시는 커플브리지가 완성되면 대전천 동측의 청소년 위캔센터·중앙시장과 서측의 케미스트리트·스카이로드 등을 연결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은행교와 중교 사이





커플리지 조감도

지하로 이동하기 편해졌어요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중앙로 지하상가 구간
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이 추가로 설치돼 원도
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도심을 걸으며 즐길 수
있게 됐다.

총 18억 원(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에 나선 대전시는 지난 2018년 12월 착공
에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4개소, 엘리베이터 1개소, 횡
단보도 1개소를 설치했다. 또 올해 안에 중구청 옆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어려웠던 원도심 주차, 이젠 안녕~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원도심에 도로 지하공간을 활
용해 4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대전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
해 중구 대종로 대흥동네거리 일원 도로 지하공간에 소
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총 240억 원(국비 60억 원, 시비 180억 원)을 투입해 400면
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주
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내년부터 공사
를 시작할 계획이다.

📍 대종로 446 일원





가양동에 제2시립도서관 들어선다

동구 가양동에 제2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제2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와 관련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동구 가양동의 현 가양도서관 자리(22·4번지)에 제2시립도서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2시립도서관은 총 2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연면적 약 7,140㎡ 규모로 지어지며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발전으로 인한 신구도시 간 인구와 문화 쏠림현상, 이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불균형 등으로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 왔다. 이에 시는 제2시립도서관을 원도심인 동구지역에 건립해 도시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구도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989년 개관한 한밭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2시립도서관은 혁신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부권 최대의 도서관형 메이커스페이스로 태어난다. 테마형 도서관인 어린이·청소년 창의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 1층은 어린이 공간, 2층은 청소년 공간, 3~4층은 성인공간으로 꾸며진다.

1층에는 어린이시설인 다함께 아이키움 공간과 유아가족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체험교실(AV체험실, 북아트교실, 동화창작교실), 어린이공작실(레고블럭키트메이커교실, 장난감키트메이커실), 아트리움(독서·전시·상상공간)과 휴게공간(카페, 스낵코너), 어린이영어도서관

을 조성한다. 2층에는 청소년 시설인 어린이·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 청소년커뮤니티실과 심리상담 공간, 만화 및 웹툰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주민문화시설 기능으로 활용될 3층과 4층에는 인문학 등 일반자료실과 북카페형 열람공간, 동아리실과 소통실, 주민문화센터, 업무지원실 등이 조성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2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동구와 대덕구의 15개동 약 23만여 지역주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구도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차는 더 편해지고 119 출동은 더 빠르게

스마트시티 챌린지 최종 대상지 선정

근접 구역 내 여유 있는 주차장을 파악하고
전통시장과 노후공장 같은 전기화재 위험 지역에는
화재예방 센서가 설치돼 안전을 더해준다.
또 대전시내 26개 119안전센터에는 드론스테이션이
배치돼 화재 신고 시 현장 가까운 무인 드론이
영상을 촬영해 출동대와 상황실로 영상을 보내준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변하는 대전의 모습이다.

글 임연희 사진 윤기중



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대전시는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진 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인천시,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과 함께 본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100억 원의 국비를 3년에 나눠 지원받는다.

지난해 6~12월 지역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실증 1단계 사업을 펼쳐온 대전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주차공유를 비롯해 △전기화재예방 △무인드론안전망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데이터허브구축 등을 중

앙시장 일원에서 진행했다. 주차공유 서비스는 민간주차장과 공공주차장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로 1단계 10억여 원을 투입해 7개 주차장 731면을 공유한 결과 주차장 이용률 21.9%, 교통 혼잡도 개선 20.9%, 평균수익률 25.9%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기이상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전기화재예방 서비스는 2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 등에 314개의 전기화재 센서를 설치해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상인들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화재경보기 설치사업과 연계해 1,200여개 점포에 추가 설치했다.

사고현장영상을 드론으로 자동 촬영해 119상황실과 소방현장에 제공하는 무인드론안전망 서비스는 2억 원을 투입해 가양동과 원동 119안전센터 2곳에 드론스테이션

을 설치했는데 2분 내 현장 도착률 97%, 영상 송출 성공률 96%의 실증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서비스와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에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 환경부 인증 1등급 센서를 500m 간격으로 미세먼지를 조밀하게 측정해 국가측정망과 정밀도를 비교했으며 민간·공공·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18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활용 가능성을 실증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시는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민간투자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1. 중앙시장 일원에서 실시됐던 주차공유 서비스가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2. 허태정 대전시장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최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 26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될 무인 드론기
4.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줄 전기 화재예방센서



대전시는 시 전역에 3만 개 이상의 공유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어느 곳이든 시민이 주차장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노후공장 등 전기화재 위험 지역에는 6,000여 개의 전기 화재예방 센서를 추가 설치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전역의 26개 119안전센터에는 드론스테이션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화재신고 시 인근의 드론이 자동으로 출동해 현장영상을 119상황실과 소방현장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허브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행정기관의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도시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소, 민간기업, 시민 등에 데이터 오픈랩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140개국 1,0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총회를 통해 대전과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전여행, 제가 도와 드릴게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6명이 났다

대전역과 원도심 일원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났다.
빨간 옷을 입은 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안내사들이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관광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글 임연희 사진 최용성 박상진

2019~2021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대전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관광 안내사들이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정식 관광안내소의 한계를 극복한 능동적인 관광 안내서비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영어권에 권지은·유가현 씨, 일본어권 손창만·박수아 씨, 중국어권에 조죽현·양민석 씨 등 6명을 움직이는 관광안내사로 선발했다.

이들은 2월 3~14일 진행된 1, 2차 과정을 통해 외국 관광객 응대를 비롯해 응급처치,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를 했다. 현장교육은 대전역 서광장 시티투어버스 출발 장소에서 시작해 대전역과 중앙시장,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예술거리, 근현대사전시관 등을 직접 둘러보며 원도심에 얹힌 대전이야기를 배웠다. 우송정보대학에서는 이론교육도 가졌다.

교육을 진행한 김수경 교수(우송정보대)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기본뿐 아니라 관광객이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과 성희롱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병행했다”면서 “이들 관광안내사가 대전의 얼굴이자 대전을 알리는 첫 관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들 6명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사는 2월 17일부터 2명씩조를 이뤄 대전역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근현대사전시관 일대를 고정대기하거나 도보로 순환하며 만나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4~10월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가 집중하는 시기에는 행사장에도 파견돼 관광안내는 물론 통역 활동으로 행사를 빛낼 계획이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6명은 월~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니 운영 기간 중 언제나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관광마케팅과 270-3981



대전방문의 해 반짝반짝 빛내줄게요



권자은
35 · 영어

곤란 겪는 외국 관광객에 먼저 다가갈 것

처음 여행하는 나라와 도시에 갔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곤란을 겪은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다면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여행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관광안내사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이고 유용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대전의 도시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방문의 해에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귀하고 값지게 활용하겠습니다.

친근한 대전 알리미 되고 싶어

‘움직이는 관광안내사’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도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보고 즐길 것들이 더욱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좋은 맛집이 즐비하고 근현대가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여행을 하기에 최적화 된 도시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안내사가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명소를 외국 관광객에게 쉽고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도시 대전을 알리는 친절하고 친근한 ‘대전 알리미’가 되겠습니다.



유가현
37 · 영어



손창만
63 · 일본어

다시 만나고 싶은 관광안내사 되고파

30여 년 생활하고 있는 대전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자격을 취득한 후 마침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움직이는 관광안내사’에 지원했는데 선발돼 기쁨과 동시에 의무감도 큼니다.

대전에 온 외국 방문객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전을 안내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자연환경, 전통을 소개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방문목적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만나고 싶은 관광안내사’가 되어 ‘다시 찾고 싶은 대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관광객에게 대전 반전매력 소개

대전은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 과학수도이면서 '효'의 가치를 전승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알면 알수록 반전 매력이 있는 재미와 즐거움의 도시입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사'라는 새롭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제가 가진 호기심과 역량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을 방문한 제 또래 외국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로 이들에게 대전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관광트렌드를 공부하면서 안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아
28 · 일본어



조죽현
60 · 중국어

대전 이미지 높이는 민간 외교관 역할

일선에서 물러나는 정년의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라는 제 작은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대전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다시 찾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여행지로 대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도 불리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외국인에게 대전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학 경험 바탕으로 실질적 도움 줄 것

중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아내의 고향인 대전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대전의 곳곳을 다니며 보고 들은 대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제가 가진 중국어 능력을 활용해 대전을 찾는 중국 관광객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대전에 와서 궁금해 하던 것들을 관광객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불편함, 그리고 좋았던 것들을 경험삼아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물론 중국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데 이들에게 대전을 잘 알리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양민석
39 · 중국어



코로나 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대전시는 대전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 허용주 사진 윤기중



대전시는 2월 22일 확진자가 다녀간 지하상가를 임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이들이 이용한 공공교통과 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또 기존 6개반 9명으로 24시간 운영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반 3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관 조치도 단행했다. 대전시

청사 20층 하늘도서관과 3층 희망열람실을 폐쇄하고 1층과 2층 전시행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밭도서관과 각 구 도서관,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박물관 등도 상황종료 시까지 휴관에 들어갔다. 시는 이와함께 다중시설과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학교체육관 등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휴장을 권고, 시민 안전 방지에



동참을 요구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대전예술의 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공연장도 상황 종료 시까지 휴관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전시청내 모든 사무실에 방문객 출입도 제한된다.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 전시실과 2층 전시실에 민원인 임시접견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선별진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와 함께 대전역과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대전시청사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이와함께 전통시장, 지하상가, 정류장, 시내버스와 전동차 내부 등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민간공연시설 등지에 방역조치와 함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시내버스 내부 소독을 하루 7회 이상으로 강화해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상시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자금 만기 연장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로 기업부담을 줄이는 한편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동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특별금융지원 상품을 통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분기 총 1,651개 신청업체에 대한 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조기에 지원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주 1회 구내식당 휴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당분간 집단 시설과 다중 이용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5개구 보건소 연락처 | 동구 251-6305, 중구 288-8035, 서구 288-4524, 유성구 611-5047, 대덕구 608-5432

소상공인 · 기업 피해 상담창구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3041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진료 또는 이송 시 보건 의료인(의료진, 이송요원 등)에 대해서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KF80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접촉,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A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 일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이용 권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
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하기

Q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A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자가 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가 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A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대전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착공

대전의 마이스(MICE)산업을 선도할 대전국제전시
컨벤션센터(DICC)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글 허용주 사진 윤기중



대전시는 2월 4일 오후 2시 유성구 도룡동 구 무역전시관
부지(도룡동 3-8)에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건
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지난 1993년 지어져 노후화
되고 전시공간이 협소했던 구 대전무역전시관을 대체하
기 위한 시설로, 구 무역전시관 부지에 연면적 4만 9,754
㎡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중부권 최대의 대형 전시 공
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090여억 원을 투입
해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대전은 연간 500여 회의 컨벤션이 열리는 국제회의의 도시
로, 굵직한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은 있
으나 대형 전시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구 무역전시관은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지어졌던 창고형 임시 가건물로
재난에 취약하고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전시공간
협소로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전시, 교류, 거래 등 비즈니스 기능을 위한 대형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판단,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2011년 구 무역전시관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건립규모 축소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회되는 등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중부권의 열악한 전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설계공모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기본설계용역 완료, 시공업체 선정 등의 긴 여정을 거쳐 2022년 초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의 착공으로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에 따른 국제전시공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22년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몰, 과학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로, 전시·컨벤션 개최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시작으로 중부권 최고의 마이스(MICE) 산업 중심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전에서 열리는 UCLG 총회는?



오는 2022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장 후 개최되는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UN(국제연합)이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연합체로, 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세계도시연맹(UTO)이 통합돼 2004년 출범했다. UN이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기구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

기 위한 비정부 연합체다. 대전시는 그동안 총회 유치에 위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왔고 지난해 11월 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2022년 총회 개최도시로 확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2022년 10월 대전에서 열릴 UCLG 총회에는 세계 도시 정상 등 5,000여 명이 대전을 방문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대전시청사에 가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대전시청은 대전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근로공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이기도 하다.

하늘마당과 하늘도서관, 전시실, 자료실, 나무병원, 건강카페, TJ마트 등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언제든지 전문가들을 통해 꼼꼼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 허용주 사진 최용성, 박상진 일러스트 이슬기





업주의 환불 불가 억울해요

소비자 상담

“00동 피부관리실에서 멤버십 등록을 하고 총 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총 횟수 중 절반 정도 관리를 받은 후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했고 몇 달간 관리를 받지 못하다가 관리실로 전화를 걸어 몇 회 남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멤버십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이용하라는 문자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환불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시청사 2층 종합민원실 내에 마련된 소비생활센터는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상담원이 상주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2003년에 개소해 오랫동안 소비자 상담을 진행해온 곳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1,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전화 | 270-4208

온라인 | 대전시 홈페이지→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온라인상담

방문 | 대전시청 2층 민원실 소비생활센터 창구

업주의 임금 체불로 고민입니다

법률상담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상담창구가 있다면 법 관련 민원이다. 대전시청 2층 민원실 내에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법률홈닥터가 상주해 있어 예약 후 방문하면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법률홈닥터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돕는다. 법률홈닥터가 지역의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65곳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전에는 대전광역시청과 동구청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장애인·독거노인·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며 채권이나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민원인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법교육은 물론,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 |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방문 | 대전시청 2층 민원실 법률홈닥터
270-2384

동구청 | 251-6229

인권침해 어디 호소할 데 없나요?

시민인권상담

대전시 관할 업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권전문가로, 대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를 상담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대전시에는 7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 본청, 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민간위탁기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대전시가 위임한 사무와 관련해 인권침해, 나이·성별·장애·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등을 받았을 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및 관련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 | (시민인권보호관 직통) 270-0562

방문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5층)

대전광역시청 자치분권과(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8층)

홈페이지 | www.daejeon.go.kr-인권침해

이메일 | djhumanrights@korea.kr

절차 | 상담→조사→심의·의결→결과보고
및 권고→결과통보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우리 아이 걱정돼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학교를 다녀오면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으려는 아이,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 휴대폰 및 인터넷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전스마트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개소해 현재의 스마트쉼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에는 시청 4층 정보화담당관실 앞에 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센터 내방, 전화, 집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정방문상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한다.

전화상담 | 1599-0075

(평일 9~22시, 토요일 9~18시),

270-3223-5

내방상담 | 대전시청사 4층 스마트쉼센터

가정방문상담 | 상담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

온라인상담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www.iapc.or.kr) 게시판,

모바일 m.iapc.or.kr



우리아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알아보기

대상 : 6~12세 아동

전혀 그렇지 않다 : 4 그렇지 않다 : 3 그렇다 : 3 매우 그렇다 : 1

-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 2. 정해진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 3.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기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 5.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채점결과(36점 최고점)

28점 이상	27~24점	23점 이하
고위험군	중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

시청사 하늘마당 리모델링

시청사 20층 하늘마당이 지난 1월 17일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 3월 중순쯤이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는 복합문화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바닥 및 벽체, 천장 철거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 무대설치 및 카페, 소규모 미팅룸, 수유실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전시청사 출입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은 사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십시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충청권 광역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 광역의회 의장단은 2월 18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처리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돼 가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장단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와 정부의 지방분권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까지 11개 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배제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된 바 있다.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내용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사례
— 시책 개선 및 건의, 시민안전 저해사항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제보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hermeet@korea.kr
대전광역시의회 페이스북(@councildj), 270-5075, 5055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사당관실

☎ 대전시의회는 시정과 의정활동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 상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접수방법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방문·인터넷)
접 수 처 대전광역시의회 의사당관실(접수 후 소관 위원회 지정 회부)
문 의 대전광역시의회 대표 270-5142, 의사당관실 270-5051-2
홈페이지 <http://council.daejeon.go.kr>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경기 활성화 공로 ‘감사패’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월 3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공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하도급 강화 등에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복 위원장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예교육 진흥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대전시의회는 2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정기현 의원 주관으로 서예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창호 한국서예협회 대전지부장, 배능재 대전성모초 교사, 유명기 대전대 서예디자인학과 졸업생, 이충열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금 한국서예협회 용인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서예교육 활성화 사례와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서예전문가를 활용한 서예교육 사례, 교육적 효과 등을 소개했다.

정기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정기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서예 전문가를 활용한 서예교육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겠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 한국지방정부 의정대상



남진근 의원이 2월 17일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문유석)가 수여하는 ‘2019 한국지방정부 의정대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상이다.

남 의원은 대전시의회 6대 의원을 거쳐 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재개발, 원도심 경쟁력 강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회의와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 대전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새봄과 함께 대문이 활짝~

안전한 학교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2월 출범했다.
중부권 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만학도를 위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도 3월 문을 연다.
새봄과 함께 활짝 문을 여는 이 곳은 새로운 대전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다.

글 임연희



건강한 학교 급식 우리 아이 쏙쏙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2월 24일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센터 개소를 위해 지난해 교육청과 민간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센터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교육청과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전시청 4층에 자리한 센터는 학교급식의 행정·관리기능을 강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대전시 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센터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

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과 연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시민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식재료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청 및 민간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과 270-0893

대전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 경쟁력

디자인은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 환경이나 이미지를 개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복합 핵심창업사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는 유성구 탑립동 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디자인진흥원을 설립했다.

3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정식 개관식은 올 하반기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역량 강화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창조 혁신형 디자인 고급인력 양성과 디자인 경영 확산 △인적 물적 혁신 네트워크 및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디자인-기술 융합 활성화와 사용자 주도형 디자인 중흥에 나선다.

대전디자인진흥원

📍 <http://www.daejeondc.or.kr>

📍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 930-7809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



만학도를 위한 배움의 전당

배움의 시기를 놓친 만학도들의 염원이던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3월 16일 개교한다.

시립중·고는 만학도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해 설립·운영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당초 동구 자양동 대전산업정보학교에서 정식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시설 개보수 등으로 대흥동 대림빌딩 18층에서 임시 개교한다.

시립중·고는 주·야간반 16학급 규모로 운영되는데 시간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겨울 방학을 활용한 1년 3학기제를 도입했다.

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립중·고를 단순한 학력인정시설이 아니라 문해 교육과 학력인정교육을 아우르는 문해 및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립중·고 행정실 250-6700

10명 중 6명 대전시민이어서 자랑스럽다

만족도 높아진 2019 대전 사회지표조사

대전시민 10명 중 6명은
“대전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요즘 삶이 행복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주거환경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이용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2019 대전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신뢰감과 공동체 의식 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하는 대전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연령별로는 30대(61.6%), 구별로는 서구 거주민(61.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8.5%
어느 정도 그렇다	48.4%
보통이다	3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
전혀 그렇지 않다	0.2%



귀하는 향후 3년 후에도 대전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50대,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매우 그렇다	19.8%
어느 정도 그렇다	52.7%
보통이다	2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
전혀 그렇지 않다	0.2%



귀하는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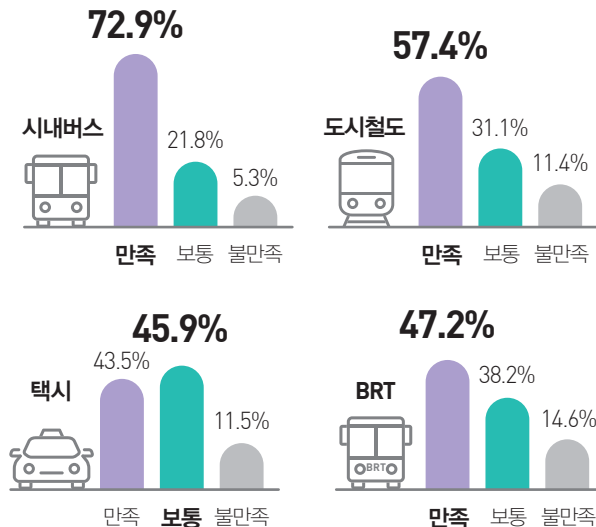
2017년보다 만족도는 14.4% 높아졌고 불만족은 3.7% 낮아졌다.

매우 만족	10.3%
약간 만족	55.9%
보통	28.7%
약간 불만족	4.6%
매우 불만족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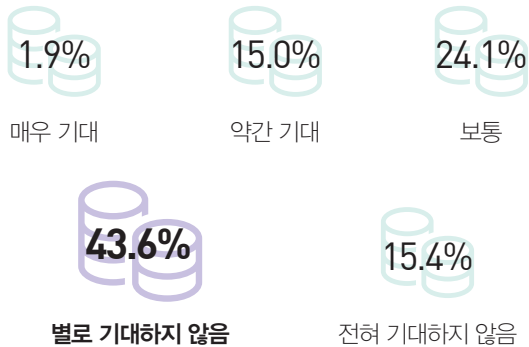
귀하는 대전시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시내버스 만족도는 21.3%, 도시철도는
18.0% 높아졌다.



만약 귀하가 집근처에서 20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했을 때 돈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16.9%가 기대한다고 응답했고, 59.0%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3년 응답과 비교했을 때 기대는 8.9% 상승한 반면 비기대는 23.7%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기대한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높았고 구별로는 유성구가 24.8%로 가장 높았다.



귀하는 요즘 행복감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다까?

매우 행복	9.3%
어느 정도 행복	46.5%
보통	36.1%
별로 행복하지 않음	7.8%
전혀 행복하지 않음	0.2%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월평균	43.3 만원
미취학	11.5 만원
초등학생	38.9 만원
중학생	42.7 만원
고등학생	54.1 만원
대학생(대학원)자녀	23.5 만원



※2019 대전의 사회지표는 대전시내 5,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면접과 행정지표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대전시 홈페이지(대전소개→대전의 통계→e-대전통계→대전의 사회지표)에서는 전자책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자로도 볼 수 있다.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270-3243



당신의 생각은 평균적인 대전사람들과 얼마나 같을까요?
이번 사회지표 조사에서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된 문항에서
비교해보세요. 결과는 53쪽에 있습니다.

1.
다음은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귀하는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겠습니까?
- | | |
|----------------|---------------|
| ① 삼계탕 | ⑥ 구즉 토토리묵 |
| ② 돌솥밥 | ⑦ 칼국수 |
| ③ 설렁탕 | ⑧ 두부두루치기 |
| ④ 솥골냉면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 ⑤ 대청호 민물고기 매운탕 | |

2.
다음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곳입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명소는 어디입니까?
- | | |
|-----------------|--------------|
| ① 오월드 | ⑧ 대전둘레산길 |
| ② 뿌리공원 | ⑨ 동춘당 |
| ③ 엑스포과학공원 | ⑩ 대전문화예술단지 |
| ④ 한밭수목원 | ⑪ 으능정이문화의거리 |
| ⑤ 계족산 황톳길(계족산성) | ⑫ 유성온천 |
| ⑥ 대청호반 | ⑬ 기타(구체적으로) |
| ⑦ 장태산자연휴양림 | |

도심 속 야생동물의 피난처

대전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인간만의 삶터라 여겨지는 도시공간.
사람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생명체인
야생동물들도 곳곳에 깃들어 살고 있다.
도시화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물이나 전선, 차와 충돌해 다치는
야생동물을 보듬어 주는 곳이다.

글 임연희 사진 박상진



구조관리사들이 수리부엉이를 보살피고 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중략)...

사람 가까이서/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시인의 시 '성북동 비둘기'는 도시가 산업화 되면서 비둘기마저 보금자리를 잃고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난해 가장 많이 구조한 조류는 비둘기였다. 전체 조류 구조건수 754건 중 15.8%(119건)가 집비둘기였으며 14.6%(110건)는 멧비둘기였다. 둘을 합하면 30%가 넘는다. 집비둘기는 공원이나 하천,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이며 멧비둘기는 잿빛이 도는 보라색 텃새로 산비둘기라고도 한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승경 구조관리사는 “학생들이 장난으로 비둘기를 괴롭히거나 학대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쥐 같은 것을 잡기 위해 놓아둔 끈끈이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도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센터가 구조한 야생동물은 모두 911건으로 이 중 조류가 가장 많은 754건이며 포유류 151건, 파충류 6건이었다. 2015년 10월 센터 개소 후 355건에서 2016년 843건, 2017년 873건, 2018년 882건으로 매년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경 구조관리사는 “건물이나 차량과의 충

돌, 추락 등 사고·조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야생동물의 조난 유형을 보면 전선이나 건물과의 충돌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147건), 어미 잃음(118건), 인가 침입(116건), 포식자 공격(73건), 차량과의 충돌(63건), 기아 및 탈진(30건) 등이었다.

신고는 주로 119를 통해 이뤄지며 시청이나 자치구를 통해 들어오기도 한다. 센터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센터로 직접 연락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송근호 센터장을 비롯해 수의사, 구조관리사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야생동물을 구조한 뒤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통해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사해 생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염성 질병도 모니터링 한다.

대전시는 2013년 충남대학교와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충남대 수의과대학 뒤편에 총 12억 원을 들여 891㎡규모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진료실과 수술실, 입원실, 재활훈련장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인큐베이터와 혈액가스분석기, 고압증기멸균기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다. 시는 매년 국비와 시비 4억여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관리 및 재활훈련·방사, 질병연구와 멸종위기종의 보전·관리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근호 센터장은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해 치료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수의과대학
☎ 821-7930
🌐 <http://www.dwrc.or.kr>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 단골 손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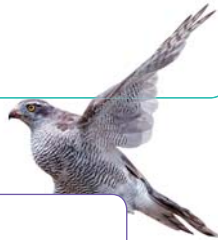
비둘기

센터에 구조되는 비둘기는 주로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와 야산이나 숲에 거주하는 '멧비둘기'인데요. 멧비둘기는 '산비둘기'라고도 불리며 깃털은 잿빛이나 검은 갈색을 띱니다. 집비둘기보다는 사람들 눈에 덜 띄는 편이고 종종 비둘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황조롱이

도심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높은 빌딩에 둥지를 틀고 사는 녀석들이 많다보니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매과에 속하는 새인데 몸길이가 33~36cm로 작은 편이고 암컷과 수컷의 겉 모습이 달라요. 수컷의 머리는 청회색 깃털인 반면 암컷은 갈색이에요. 천연기념물 제 323-8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참매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로 천연기념물 323-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입니다. 흰 눈썹선이 굵고 뚜렷하며 몸 윗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아랫면은 흰색입니다. 얼굴 밑 몸통에 전반적인 흰색에 얇고 촘촘한 검은 가로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냥을 잘 해서 예부터 켜 사냥에 이용했던 새입니다만 아무리 뛰어난 비행실력을 자랑해도 도심 구조물이나 유리 벽에 부딪쳐 다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죠.

직박구리

직박구리과에 속하는 새로, 국내에 번식하는 매우 흔한 텃새입니다. 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나무 위 등에서 시끄럽게 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등은 회색이고 날개는 회갈색을 띠며 배에서 꼬리쪽으로 갈수록 흰색 반점이 많아집니다. 뺨에 적갈색의 무늬도 특징입니다. 울음소리가 매우 우렁차서 요 녀석이 들어오면 센터가 시끌시끌합니다.



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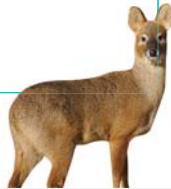
이 녀석은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라 평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가끔 낮에도 관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가로 들어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대부분 외부 기생충에 감염돼 병에 걸려 꼼짝을 못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 들어오고 종종 차량과의 충돌, 덫이나 울무에 걸려 다친 몸으로 센터에 들어옵니다.



고라니

사슴과에 속한 녀석이죠. 대부분 아산의 산기슭이나 들판, 습지에 생활합니다. 이 녀석들은 도로로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로 나오지 않으면 안 다칠 텐데 찢찢” 싶지만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경우 먹이를 찾거나 서식지로 이동하기 위해 도로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런 야생동물들은 보금자리를 잃는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움말 류석현 구조관리사



안주애기박쥐

흔히 고가옥의 기와 밑 틈새나 인공 건축물을 서식처로 이용해 비교적 도심에서 잘 발견됩니다. 해가 지면 밖으로 나와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며 배를 채웁니다. 몸의 색깔은 주로 회갈색을 띠고 등의 털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흰색 털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쥐들은 가끔 아파트 방충망에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놀라지 말고 쫓아내면 됩니다.



야생동물 구조요령

야생동물 발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구조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직접 구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보호 장비 없이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동물을 구조해서는 안 된다.



아픈 야생동물도 갑자기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기생충(벼룩, 이, 진드기 등)이나 질병(광견병, 시 등)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장갑을 착용한다.



종이상자나 애완동물용 이동장의 바닥에 부드러운 수건을 깔고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준다. 철망으로 된 이동장은 새의 깃털을 손상시키고 너구리가 물어뜯으면서 상처를 입으므로 좋지 않다.



동물의 시야를 수건으로 가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시켜 준다. 동물이 탈출하지 않도록 보안에도 주의한다.



적합하지 않은 먹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동물을 더욱 아프게 한다. 평소 먹는 먹이라도 쇠약한 동물에게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거나 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해 상태가 더 악화된다.



사체발견 시 함부로 만지지 말고 동물과 접촉한 후 손과 물건을 깨끗이 소독한다.



정확한 발견 장소를 알아두면 후에 자연으로 방생 시 중요한 정보가 된다.



가능한 빨리 야생동물 구조 단체에 연락한다.
필요이상으로 동물을 장기간 집에 두지 말아야 한다.
※ 야생동물 신고접수 821-7930



어미가 없는 새끼를 발견했을 경우 먼저 구조하지 말고 먼 거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켜본다.
어미가 있는 개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3·8민주의거 60주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자
대전·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는 3·8민주의거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글 허용주 사진 윤기중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 번째 열렸던 지난해 기념식 모습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0년 3월 8일, 대전고 학생 1,000여 명이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정부통령선거 전락을 규탄하고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당초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전체 고등학교가 연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경찰이 저지에 나선 가운데 대전고만이 시위를 강행했다. 이를 후인 3월 10일에는 연행된 학도호국단 대표들의 석방을 외치며, 대전상고 학생 600여 명이 시위에 나섰고 많은 학생들이 경찰의 진압과 도주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2명의 교사는 체포되었다.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바로 ‘대전 3·8민주의거’다.

지난 2018년 11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전 3·8민주의거가 올해 60주년을 맞는다. 대전시는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한다.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특별사진 전시회, 60년사 발간,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등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전, 기념음악회, 전국청소년 영상공모전, 3·8학생 백일장 등이 예정되어 있다. 대전시는 당초 3월 8일 60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

자치분권과 270-0551

교과서 수록 및 달력 표기(~2021년)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초·중·고등 사회교과서 등 지역화 교재에 수록하는 것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및 단체, 인쇄협동조합, 달력 제작업체 등에 3·8민주의거 기념일의 달력 표기도 추진한다.

60주년 아카이브 구축

3·8민주의거 참여자들의 증언을 채록해 서적 출판 및 CD제작·배포해 3·8민주의거의 자유 민주정신을 함양한다. 구술은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방영(3월 4일)

(가칭)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 '그날, 3월 8일'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3월 4일에 방영할 계획이다.

창작 뮤지컬 제작·공연(2021년 3월)

3·8민주의거 정신을 담은 예술작품을 제작한다. 뮤지컬, 오페라, 연극, 현대무용 등 예술장르 및 대본공모를 확정해 내년 3월 선보인다.

3·8민주의거 60주년 특별 사진전시회(3~6월)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법적 인권유린에 대항한 대전지역 고등학생의 그날의 현장 사진과 언론보도자료 등의 지역 민주화 운동 역사 자료 20~40여 점을 대전광역시청 또는 옛 충남도청에서 전시한다.

대전 3·8민주의거 60년사/계간지 발간

3·8민주의거 이후의 민주화 운동 기록, 사진, 증언, 사업내용 및 실적 등 지난 60년간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60년사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 또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특집기고, 시민마당, 각종 기념사업회의 사업활동 등을 담은 계간지를 4월부터 분기별로 발간할 예정이다.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2023년)

충부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복합기능의 기념관이 건립된다. 위치는 미정이다. 1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약 3,000㎡에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강당 등이 조성되며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대전 3·8민주의거 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전(3~5월)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가치의 창의적 반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6월 중 시상한다.

전국 청소년 영상공모전(5~10월)

3·8민주의거를 주제로 전국의 초·중·고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매체(캠코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로 창작한 5분 이내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공모한다. 11월 중 시상한다.

3·8학생 백일장(9~11월)

'3·8민주의거의 과정과 그 정신의 이해'를 주제로 9~11월 중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2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다. 11월 중 시상한다.



대전 소식 전하는 깃잎머리 언니

대전시 인터넷방송 제작
‘불량언니의 안불량뉴스’ 최해정 씨

글 허용주 사진 박상진



지금 TJ마트로 가!
한과 사! 고추장 사!
참기름 당장 사러 가!



후딱 가! 후딱 가! 후딱 가!
후딱 가 봐요.
시간낭비하지 말고
빨리 TJ마트로 가요~~♪♪



불량(?)하게 차려입은 언니가 ‘스웨그(swag) 넘치는’ 표정과 말투로 지금 당장 TJ마트로 가서 한과도 사고 고추장도 사고 참기름도 사라고 강요한다. 주변에서 흔하게 접했던 지역상품 홍보 영상물인데, 너무 불량해서, 너무 거만해서, 너무 웃겨서 자꾸만 초집중해 보게 된다.

대전시에 불량언니가 났다. 대전시 인터넷방송이 매주 제작하는 ‘불량언니의 안불량뉴스’는 대전시의 주요 시정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책 및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뉴스 영상물로, 불량언니는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너무 웃겨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불량한 언니를 어디서 데려온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는 이는 바로 방송인 최해정 씨다. 그녀는 KBS ‘아침이 좋다’, TJB ‘생방송 투데이’, 전주 KBS ‘6시 내고향’ 등의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10년차 베테랑 리포터이면서 세종시 교육청의 ‘세종교육 뉴스’와 충남도교육청의 ‘충남에듀잇슈’ 등의 뉴스를 이끌어온 진행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부터 매주 1회 제작돼 대전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는 ‘불량언니의 안불량뉴스’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입소문을 탈 수 있었던 데에는 기존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틀을 살짝 벗어난 기

획과 톡톡 튀는 대사 및 영상편집을 바탕으로 불량언니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낸 최해정 씨의 끼와 재능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대전시 인터넷방송의 ‘나와유 대전’ 코너를 담당해왔는데, 불량언니를 시작하고부터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남들이 나를 보며 웃는 것이 즐겁고, 방송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망가지는 것이 더 즐겁다보니 불량언니를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불량언니는 나를 위한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면서, 소위 선배 리포터의 ‘땀뽕’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방송일이 그녀의 천직이 됐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의 스케줄이 핑크 나면 늘 ‘대기중’이었던 내가 대타로 뛰곤 했는데, 첫 촬영 날 아! 이게 내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발음과 연기 등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방송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촬영 전 미리 대본을 읽고 구상을 하고 연습을 한 후 촬영에 임하는 것보다 그날의 현장분위기와 그날의 컨디션에 맡겨 100% 리얼로 촬영한 것이 더 반응이 좋다는 그의 말처럼, 해정 씨

는 천상 끼 많은 방송인이다.

불량언니 촬영에 필요한 소품 및 분장은 해정 씨가 모두 공수한다. 오랜 리포터 생활로 인해 교복에서부터 장금이 옷 등의 다양한 복장과 웬만한 가발, 천사·악마 등의 소품 등을 갖추고 있어 대본에 따라 직접 소품을 챙겨와 착용하고 머리스타일도 직접 구상한다.

해정 씨는 “대전시정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다 보니, 실제로 나부터도 몰랐던 대전시정을 많이 알게 됐다. 방송을 촬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를 다니는 등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그녀는 “방송에서 내 코너가 시작될 때 진행자가 “인간 비타민 최해정 리포터입니다”라고 소개하곤 하는데,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엔돌핀이 도는 그런 방송인으로 남고 싶다. 불량하지만, 불량하지 않은 소식들을 전해줄 불량언니 뉴스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해정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포털검색어 **불량언니**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취업 성공의 달인

백운순 상담사

글 임연희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이죠.”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백운순 취업상담사(47)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히 도전하라”고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백 상담사는 지난해 많게는 하루 12개 기업을 방문했고 10여명에게 구직상담을 해주었다. 그 결과 1년 동안 80여 명을 취업시켰다.

대전시내 560개 강소기업을 누빈 백 상담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전국 여성 취·창업지원 우수사례 공모에서 ‘이런 기업발굴은 없었다-강소기업 발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백 상담사의 강소기업 집중발굴로 그동안 복지와 조리에 치중돼 있던 구인업체 업종이 4차산업과 정보기술(IT)계열,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었으며 30~40대 연령층의 취업 성공사례도 늘었다.

백 상담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팀원 10명이 2인 1조로 나눠 대전의 560개 기업을 수차례 방문해 협약을 맺고 채용까지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3년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7년 9월부터 대

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상담사로 근무하는 그는 구직자와 채용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도 크다.

“2018년 12월 말 초등학생 둘을 둔 40대 주부가 찾아왔는데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해 생계를 꾸려야 한다며 눈물부터 떨구는데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행히 사회복지분야 자격이 있어 주말에 주간보호센터 면접을 보고 월요일부터 곧바로 출근해 뿌듯했죠.”

베테랑 상담사로 통하는 그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인재를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며 “취업 및 전문가과정에 무료는 물론이고 국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시는 관내 3개 새일센터(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전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전배재대ICT융합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만 6,618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7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했으며 2,797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성인지정책담당관 270-3153

대전의 매력 더욱 살리고 ~

초대 총괄건축가 이성관 대표

글 임연희

“대전에서 처음 시행되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대전 첫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성관(쥬건
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71)는 앞으로 2년간 대전의
공간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
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를 수행한다.

이 건축가는 대전에 대해 “사방으로 뻗은 초록색 꽃잎
모양의 대전시 상징마크처럼 대전은 국토·교통·행정·과
학·문화의 중심지로 사통팔달 힘차게 도약하는 도시”라
고 평하며 “도심을 지나는 3대 하천과 철도, 도로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열린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
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은 대전역과 경부선 철도의 영향으로 근현
대도시 이미지를 함께 가진 매력적인 곳으로 시각적으
로도 도시가 잘 디자인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과 랜드
마크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건축가는 “대전이란 도시의 기능과 외형적 형상이 조
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개
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어떤 내용이든
최종적으로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대전에 더 자주 오고 가까워질 것”



대전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성관 대표(사진 왼쪽)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이라면서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맡았지만 건축·도시·조
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면서 대
전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 한울건축 대표로 건축창작 활
동을 해온 이 총괄건축가는 용산전쟁기념관과 탄허기념
박물관, 여주박물관 등 수많은 수상 작품을 설계했다.

대한민국 건축상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8회 수상하고 이 중 대통령상인 대상만 3회 수상
한 공공건축 설계분야의 거장으로 꼽힌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 및 공
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에 공공건축가 의무 참여를 규정하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경관과에 공공건
축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
가)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시는 이 총괄건축가와 함
께 천의영(경기대 건축과 교수)·송복섭(한밭대 건축
과 교수) 수석공공건축가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
해 올해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
적으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경관과 270-6431

지역 청소년 사랑 같이 나눠요 평송청소년장학회

글 박경은(명예기자·가득이심리상담센터 대표)



매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십시일반 모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회가 있다. 올해로 설립 18주년을 맞는 평송청소년장학회다. 평송청소년장학회는 평송 이남용 선생의 청소년을 향한 거룩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학업에 정진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학업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14명의 회원이 모여 2002년 3월 5일 설립됐다. 2018년 3월에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평송청소년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청소년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대전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로 해 장학회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평송 이남용은?

평송 이남용 선생(1924~2000)은 1990년 평생 모은 재산 30억 원을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기탁한 인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의 주역이다.



장학회가 한창 활성화될 때는 9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400명 정도의 회원이 장학회를 후원해주고 있다. 회원 중에는 장학회 임원진들을 감동시키는 익명의 기부자도 많다. 장학회는 2002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1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9억 3,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31명의 중·고등학생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회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2월 월례회에서는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5지역위원회(이태하 부총재) 회원들의 협찬과 라이온스 대리운전의 수익금 전액을 모아 300만 원을 (사)평송청소년장학회에 전달했다.

올해부터 장학회를 새롭게 이끌게 된 4대 조은행 이사장(치과의사)은 “설립 때부터 기탁금액 거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평송장학회는 임원진들이 사비를 들여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학회”라며 “미래 주역인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대전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문의 정호순 사무국장 010-4480-6434

대전 시민과 친구가 되고 싶은 아미치(AMICI) 앙상블

글 이종영(명예기자·뜸연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합창단이 있다. 이름은 아미치(AMICI) 앙상블. 아미치는 이탈리아어로 ‘친구’라는 뜻이다. 아미치가 탄생한 것은 지난 2017년. 한 민간 오페라단이 꾸린 공연에서 합창단으로 참여했던 여성 일곱 명이 모여 시작했다. 성악은 전공했지만 육아와 가사에 밀려 노래는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했던 여성들은 오페라 공연이 끝났어도 계속 노래하고 싶다는 바람을 아미치로 이뤘다.

아미치 앙상블은 임권묵(테너) 지휘자의 지도로 사진작가 겸 성악가인 김해연(소프라노) 단장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단원이 매주 화요일 저녁시간 서구 탄방동에서 모여 연습한다. 초창기에는 성악 전공자들로만 출발했지만 지금은 비전공자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김 단장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층의 단원이 참



여하고 있다”며 “아미치는 노래하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힐링하는 삶을 추구하는 단체인 만큼 신규 단원을 뽑을 때 노래실력보다는 인성을 먼저 보고 있다”고 밝힌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단원으로 인해 조화가 깨지면 단원간 불협화음으로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미치는 바쁜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레퍼토리 범위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가곡 영화음악 등 가벼운 곡부터 성가곡, 오페라합창 등 전문 범위까지 다 소화하고 있다. 무대는 매년 1회 정기 공연과 비정기적으로 주제가 다른 공연을 기획하여 교회 또는 병원 등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로 꾸민다.

김 단장은 앞으로 스물다섯 명까지 단원이 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노래에 관심이 있고 인품이 잘 갖춰진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힌다.

“노래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임권묵 지휘자가 워낙 잘 가르쳐줘서 실력이 금방 향상되니까요.”

일찍이 괴테는 “고상한 남성은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진다”고 했다. 노래와 봉사를 사랑하며 고상한 삶을 사랑하는 단원들이 활동하는 아미치 앙상블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김해연 단장 휴대폰 010-3390-5877

대전 또 하나의 이름, 클래식 기타 도시

‘대전기타리스트협회’ 탄생

글 허용주



“수도권의 문화솔림현상이 심각한데, 사실 클래식기타 만큼은 대전이 메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다른 지역에는 클래식기타 전공자 자체를 선발하지 않는데, 그래도 대전지역 음대에서는 매년 클래식기타 전공자들을 뽑고 있고, 클래식기타 동호회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타페스티벌도 대전에서 시작한 이래 다른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했죠. 이런 클래식 기타의 도시에 기타리스트들이 그동안 모이지 않았던 것이 더 이상하죠.”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기타 전문 연주자들이 모였다.

클래식기타를 전공하고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20~40대의 젊은 클래식기타 연주자 21명이 지난해 9월 대전기타리스트협회라는 이름 아래 뜻을 모았다. 전문 연주자부터 대학 및 센터에 출강하는 강사, 음악학원 원장까지 아마추어가 아닌 클래식기타를 생업으로 하는 프로 기타리스트들이다.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의 씨(목원대 음대 94학번)는 “사실 클래식기타 전공자들은 다른 연주자들과는 달



리 수적으로 열악하다. 전국적으로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평택대 정도만이 매년 클래식기타 전공생 1~2명을 선발하고 있고 대전 역시 목원대와 침신대, 배재대 등에서 1~2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만큼 동호회가 아닌, 클래식기타 전공 연주자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재현 씨(목원대 음대 01학번)는 “솔리스트와 듀오, 앙상블에 집시밴드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 또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온 연주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의 활동에 박수를 쳐주면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클래식기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엔 대전기타리스트협회 송년음악회를 열었고 소규모 카페와 예술가의 집 야외무대에서도 연주회를 열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나갔다. 오는 9월엔 시립연정국악원에서 본격 창단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대전하면 클래식 기타라는 대답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클래식 기타하면 대전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클래식기타에 서만큼은 ‘대전시민들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시민강좌 | 3 March

※ 수강료를 밝히지 않은 강좌는 무료이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폐강될 수 있으니 참석 전 전화 확인.
시민강좌에 게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련자료를 전월 15일 까지 lh3056@korea.kr 로 보내주시십시오. 문의 270-2631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인문고전 명사초청 정기특강

일 시 3.19(목) 10:00~12:00
강 사 서경덕(성신여대 교수)
주 제 한국의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
장 소 식당산홀
문 의 평생학습부 250-2741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상설미디어교육

대 상 시민 6~20명 정회원 우선 선발
장 소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접 수 센터 홈페이지(전월 15일부터)
문 의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865-3700

영화로 읽는 미디어 인문학

내 용 인문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영화 이해 교육
일 시 3.4~25(매주 수/총 4차시) 19:00~21:00

디지털 사진 제작(포토샵 활용)

내 용 어도비 포토샵CC 기본 사용법 및 이미지 편집
일 시 3.3~20(매주 화·금/총 6차시) 19:00~21:00

짧은 영상 제작

내 용 기획부터 컴퓨터 촬영·
프리미어 편집까지
짧은 영상 제작
일 시 3.3~26(매주 화·목/총 6차시) 19:00~21:00



불륜을 높여라. 라디오 토크쇼

내 용 팀 단위로 하나의 주제
선정해 대본 작성 및
녹음 작업
일 시 3.10~18(매주 화·목/
총 6차시) 10:00~12:00



소리로 만드는 미디어. 영상사운드 제작 기초

내 용 센터 내 녹음실 시설 및 장비 기초 활용교육
일 시 3.18~19(수·목/총 2차시) 19:00~22:00

1인 미디어 제작실 활용

내 용 1인 미디어 제작실 시설 및 장비 기초 활용 교육
일 시 3.5(목) 10:00~12:00/19:00~21:00

영상자서전 제작

내 용 어르신 대상 기획, 촬영, 편집, 완성까지 영상 제작
일 시 3.2~4.1(매주 월·수/총 10차시) 10:00~12:00

진잠도서관 컴퓨터 무료교육

일 시 4.2(목)~28(화) 매주 화·목 18:30~20:30
내 용 파워포인트 기초(20명)
장 소 진잠도서관 디지털자료실(1층)
접 수 3.19(목) 선착순
문 의 진잠도서관 601-6592

대전북포럼(Book Forum)

인문학 그림책 교실

일 시 3.11(수) 19:00
강 사 김서정
주 제 한 눈으로 보는 인생
장 소 대전북포럼 강의를실

인문학 그림책 여행

장 소 괴곡동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그림책 <고향의 봄>
일 시 3.21(토) 10:00



홀가분 독서모임

일 시 매주 금요일 19:00
장 소 시청역 6번 출구 현대아이텔
도 서 <한국 전래동화의 새로운 해석>



그림책 읽기 모임

일 시 매주 목요일 14:00
장 소 시청역 6번 출구 현대아이텔
문 의 대전북포럼 487-0714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상시모집

동아리	내용	시간	연락처
메타포 낭독모임	독서토론 및 낭독	마지막 주 수/13:00	010-3354-5662
기타랑	기타 연주 모임	수/15:00	010-5404-0339
라인댄스	건강한 삶을 위한 댄스 모임	목/14:30	010-2408-5808
힐링 북카페	그림책으로 힐링하는 모임	금/10:30	010-5597-3329
시네오딧세이	영화관람 및 영화이야기 나눔	13주 목/13:30	010-4748-7710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내동 '내동네 부엌'

글 이성숙(내동네 부엌 대표)



시민공유공간 내동네 부엌은 이름 그대로 열린 부엌입니다. 서구 내동 주택가 골목길에 일반 주택을 예쁘게 꾸며 지난해 4월 문을 열었습니다.

내동네 부엌이 문을 연 내동은 1인 고령가구와 1인 청년가구가 많은 노후동네입니다. 1인가구의 식생활은 외식, 배달, 질 낮고 저렴한 끼니때우기로 대부분 이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식생활의 문제가 정서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공유주방, 내동네 부엌의 출발점입니다.

내동네 부엌에서는 발작물을 가꾸고 수확해 함께 밥을 지어 먹는 '밭꽃 밥꽃', 퇴직한 남성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삼식이 눈치는 이제 그만',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요리하는 '세대융합으로 힐링' 등의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은 '내동네 소식'으로 아침밥을 지어서 먹는 것이죠. 이밖에 함께 모여 반찬을 만들어 나눠먹고, 김장철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하며, 주방이 필

요한 청년들에게는 주방을 빌려줍니다. 모든 식재료는 친환경 로컬푸드로 제공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동네 부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대문이 없으니 그냥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면 됩니다. 동네 마실 삼아 언제든지 구경하러 와주세요. 예쁜 텃밭이 있거든요. 참여자는 밴드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내동네 부엌

📍 서구 동서대로 1021번길41-(내동) ☎ 527-4803

두부두루치기가 국물과 만났다네

글 오세운 사진 최용성

은행동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옆 골목에 자리 잡은 한발 칼국수는 칼국수보다는 두부탕으로 더 유명하다. 넓은 냄비에 빨간 국물, 대파, 부드러운 두부가 전부지만, 국물을 떠먹는 순간 왜 오게 되는지 바로 알게 된다.

낮익으면서도 좀처럼 맛보기 힘든 국물 맛이 두부와 조화를 이뤄 식욕을 자극한다. 끓일수록 대파에서 우러나오는 달짝지근한 맛이 환상적이다. 두부탕을 먹는 법은 3단계. 우선 두부를 건져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칼국수 사리를 넣으면 2~3인분 식사로 든든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참기름과 김을 넣고 밥을 볶아 먹으면 된다.

칼국수도 잘 나가는 메뉴다. 바지락 몇 개와 파가 전부인데도 다진 양념과 멸치 국물의 조화가 언젠가 먹어본 듯한 추억의 맛을 선사한다. 먹을수록 걸쭉한 국물과 양념장의 간에 중독된다. 두부탕과 칼국수의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가 전부인데, 첨가되는 양념장의 비율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두부탕은 두루치기를 만들려다 실패해 매번 국물이 많

게 되었는데, 어느 손님이 맛있다면서 사리도 같이 할 것을 권유해 대표 요리가 되었다. 현 송옥선 대표는 창업자가 고령으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2년 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에게서 8년 동안 배운 내공을 토대로 옛날 맛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38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 입맛을 사로잡아 온 한발칼국수는 계속 리필해 주는 걸절이 인심도 후하다. 저녁에는 홍어찜과 탕, 닭볶음탕도 술안주용으로 잘 나간다. 두부탕은 포장도 가능.



한발칼국수

📍 중구 목척4길 6(은행동)

☎ 254-8350

📺 칼국수 5,000원 / 두부탕 8,000원 / 홍어찜 · 홍어탕 · 닭볶음탕 2만5,000원

🕒 11:00 ~ 21:00(일요일, 명절 휴무)

📌 식당 앞 5대 주차가능, 토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차 가능(도시철도 중앙로역 도보 5분)

시민이 주인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12월 교육생 모집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3월 3~12월 1학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50+생애재설계'분야는 △편편(fun fun)한 얼굴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자서전 등 두 개 강좌가 진행되고, '50+경력개발'분야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에코-크린 프로그램 등 자격증 취득과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전문인양성과정으로 진행된다. '50+문화조성'분야는 △뷰티&스타일링 △스마트폰 탐구생활 △쿠키플레이 과정 등 50+세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강좌들로 구성되었다. 교육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50~69세다. 수강신청은 센터(대흥동 대림빌딩 13층)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daejeonsenior.or.kr)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331-5064



가오근린공원 등 2곳 생태 휴식공간 조성

환경부의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동구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면적 4만

7,800㎡)과 서구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면적 2만 5,680㎡)이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동서로 산림이 단절돼 있는 이곳에 생태 숲을 복원하고 비점오염 저감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은 산림 내 대규모 불법 경작지 사용으로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고 경관이 훼손된 구봉산에 생물 서식지를 복원, 자연치유 공간과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월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환경정책과 270-5441



성암미술관 문화특강 수강생 모집

유성구 봉명동 성암미술관이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궁중화원들의 화가정신을 조명하기 위한 문화특강을 마련한다.

4월 18일 개강해 11월 21일까지 월 1회 모두 6차례 강의가 진행되는데 5회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강의는 조대우 성암미술관 명예관장이 맡고 4월 11일까지 20명을 선착순 이메일(sungam.korea@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5407-7096)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성암미술관 010-5407-7096



대전시민대학 2학기 수강생 모집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대전시민대학 2020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음악, 건강·생활체육, 공연(무용), 요리, 미술·공예, 생활기술(과학, 컴퓨터, 사진), 인문학, 시민·공동체, 직업교육, 가족서로배움학교, 심리·자기계발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4월 13일부터 프로그램별로 개강해 6월 27일까지 10주간 수업이 이뤄진다.

수강 신청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dile.or.kr) 또는 원내 보문산관 1층 학습상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민대학부 250-2777

희망나눔 캠페인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을 통해 역대 최고 모금액인 63억 7,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5년간 1억 원 기부) 회원들의 기부액 증가,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프로그램인 '착한일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착한가게(월 3만 원 기부), 중소액 기부자 확대 등 시민들의 개인 기부 참여율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47-5171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버그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에게 항생제 개발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 '슈퍼버그: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한 '슈퍼버그(Superbugs)' 전시를 국립중앙과학관이 유치해 재구성한 것이다.

전시에서는 20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항생제의 탄생부터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한 세계보건 위협, 슈퍼 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이 소개된다.

관람은 무료.

국립중앙과학관 601-7979

3월 6일까지 학습 공동체 콘텐츠 공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학습 공동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분야는 마을 학습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생활속 의제 해결을 위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등 2개로 3월 6일(금)까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중구 중앙로 101 보문산관 3층 평생학습부)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dil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부 250-2747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전마케팅공사는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3월31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설명서를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관광·축제·MICE·도시마케팅사업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문화육성사업 △지역경제 동반성장 아이디어 △사회적약자 배려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4개 주제로 이중 최대 2개 제안이 가능하다. 대전 시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제출은 이메일(IDEA@dime.or.kr)로 하면 된다. 우수한 4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총 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전마케팅공사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파트 250-1183

지역마당에 게재를 원할 경우, 관련자료를 전월 15일까지 lyh3056@korea.kr로 보내주시시오.

문의 270-2631

※ 행사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후보자·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트램도시 대전!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니다

Q&A



1 현재 트램 건설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트램 건설은 **현재 기본계획 변경 승인 단계**입니다.

- ☒ 2020. 1~5월 총사업비조정 및 기본계획(변경) 승인
- ☒ 2020~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 2022~2025 공사 추진, 시험운전, 개통

2022년 착공 예정
2025년 개통 목표



2 트램 노선은 확정된 것인가요?

노선은 사업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6.6km
총 연장



3 정거장 위치, 명칭 등은 언제 결정되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설계 후 결정

35개 정거장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과 기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사업추진 방향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하화로 추진**합니다.



지하화

테미고개, 서대전육교



5 트램 공사로 예상되는 교통문제와 대책은?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확보
차로 다이어트



6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총 사업비는?

8,191억 원이 소요됩니다.



8,191억 원
총 사업비



시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



대전시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해 무료로 광고를 게시해주는 2020년 제1차 홍보매체 시민

이용 사업에 참가할 법인 또는 단체를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 4월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이용자를 최종 선정한다. 광고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되며 7~12월 1,101면의 광고판에 나눠 게시·홍보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 대변인실(9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대변인실 270-2503

인공지능 기반 '대전창업온라인'오픈



대전시는 인공지능(AI)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대전창업온라인(<http://d-startup.kr>)'을 오픈했다. 대전창업온라인은 창업 지원 사업, 입주 공간, 기업 정보, 투자 정보 등 수요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고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채팅형 대화 기능을 탑재, 창업기업-선택기업-투자자 간 양방향 커뮤니티가 가능한 소통 공간이다. '대전창업온라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기업창업지원과 270-3723

주차장 개방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대전시는 올해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으로 최대 2,000만 원(학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미 시설된 주차장에 한해서는 주차장 개방지원금을 개방 주차장 한 면당 현금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500만 원(2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운송주차과 270-586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5,060명에 토지정보 제공

대전시는 지난해 1만 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 6,935필지 2,182만 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상 명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 직접 방문 또는 부동산포털인 씨:리얼(<https://seereal.h.or.kr>)에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 메뉴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270-6483

대전 교통문화지수 특·광역시 중 2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대전시는 7개 특·광역시 중 2위, 17개 시·도 통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전국 통합순위 5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수치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3개 지표 18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대전시는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문의 공공교통정책과 270-5721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활동과 성과목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유형으로는 청년공동체가 지역의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지역 선도형’과 지역 주민이나 자원과 연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 연계형’ 2가지가 있다.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24

‘함께 고민하는 사회혁신’ UCC 공모전



대전시는 ‘함께 고민하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3월 4일까지 UCC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으로 모션그래픽, 패러디, 시민 인터뷰, 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으로 1분 이상 3분 이내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지역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필수 제출 서류와 영상 파일을 (가칭)대전광역시사회혁신센터 공식 이메일(djsicenter@naver.com)로 접수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1팀)에 100만 원, 우수상(2팀)에 50만 원, 장려상(5팀)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한다.

문의 공동체정책과 270-0723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본격 운영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해온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가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전시소’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시민참여 모델로 오픈 7개월 만에 1만 4,000여 명이 방문해 10만 1,000여 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대전시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대전시소(<http://daejeon.go.kr/seesaw>)’에 접속하면 되고 시민 누구나 제안→공감→토론→숙의→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자치분권과 270-0541

지역 스타기업 3월 9일까지 모집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대표 유망기업 1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기업 지정서를 발급해 3년간 지원하며 지정 첫 해 기업 성장 전략 수립 컨설팅에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대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바이오소재산업 25억 원~400억 원 미만) 기업이다.

신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을 통해 3월 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미래산업과 270-0364

시민안전종합보험 첫 지급사례 나왔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A씨는 1월 중순 한발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했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월 3일 보험사로부터 사고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 대전시 콜센터(270-120),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안전정책과 270-4932

독자마당



무서웠던 그날 밤

김만석 | 서구 둔산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수필, 미담이나
〈이츠대전〉을 읽고 난 후의 의견, 제언 등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채택되어 수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분량(200자 원고지 기준)

수필, 미담 등 독자투고 3~5매,

의견 및 제언 2~3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본인 명의 계좌번호 첨부

보내실 곳

우 편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변인실 〈이츠대전〉 편집실

이메일 ksibs@korea.kr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its/>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이츠대전')

문 의 270-2630

친구 아들의 취직 톡 자리였다. 차를 가지고 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야, 쌤님같은 놈아 한 잔해라”며 이구동성으로 몰아세웠다.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두 눈 딱 감고 소주잔을 입에 댔다가 얼른 떴었다.

지난 20여 년간 운전 중에는 병아리 오줌만큼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내 기록을 깰 수 없었던 나는 슬쩍 화장실로 가서 입안에 있던 한모금의 소주를 모두 뱉어냈다. 호프집으로 2차를 간 자리에서 또다시 내게 맥주가 권해졌지만 정말 미안하다며 끝까지 사양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음주운전 중 불심검문 때 차를 휙 돌려 쏜지 빠지게 달아났던 무용담을 자랑스레 늘어놓았다. 모두들 박장대소하며 웃었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멀리서 번쩍번쩍 하는 경광등 불빛이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들이었다. 겁이 덜컥 났다. 입안에 넣었던 소주 찌꺼기가 남아있을까 마음에 걸렸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더니, 지금까지 음주운전 근처에도 얼씬 안하다가 기껏 소주 반잔 입에 대고 음주운전에 걸릴지 모른다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북치는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음주단속 중입니다”라며 측정기를 대는 경찰관이 저승사자만큼 무서웠다.

운명의 순간, 차창을 내리고 벌벌 떨며 음주 측정기를 ‘후’ 하고 불었다. 순간 ‘삐빅’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다행이었다. 정말 운전자는 단 한모금의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한 하루였다. 만약 그때 친구들의 강권에 못 이겨 몇 잔 마셨더라면 면허정지에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어 직장에서도 하고 댔을지 모른다.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말자. 벌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다. 음주운전은 남의 가족도 죽일 수 있는 범 죄행위다.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

임광복 | 서구 대덕대로

사는 게 힘들다지만 가끔은 “참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고마운 일도 있다. 벌써 오래 전 일이다. 유성에 살던 큰형님이 퇴직을 한 뒤 고민 끝에 삼겹살집을 차려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며 가게를 꾸려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제역이 터져 온나라를 휩쓸더니 손님도 확 줄어 온종일 가게문을 바라보며 손님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됐다. 하지만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가 아깝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어찌해야 할지 진퇴양난이었다.

형님은 그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게 아니라고 했다. 권리금마저 날릴 상황이 되자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나에게도 다른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밀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이 든 형님은 가게를 최종 정리하기 전 고민 끝에 가게 주인에게 이같은 사정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의외의 제안을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건 순전히 운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이 가게를 잘 운영해준 거 내가 압니다. 앞으로 한두 달만 견디면 구제역은 사라질 겁니다. 가게 임대료를 닷 달 동안 50% 깎아줄 테니 한번 버텨보세요.”

형님과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정말 “이거 실화야?” 수준의 놀라운 제안이었다. 형님은 결국 가게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성실히 운영했다. 그 후 한 달 만에 구제역은 완전 자취를 감추었고 식당은 기사화생을 했다. 형님은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신 가게 주인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일하는 기쁨

김화자 | 중구 보문로

내 나이 어느덧 77세. 이렇게 나이 지긋한 나에게 ‘취업’이라는 희망이 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노인들에게 한 달에 열흘씩 쓰레기 줍는 일을 마련해주었다. 일주일 중 월·수·금요일 하루 세 시간씩 동네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열심히 주웠다. 내가 사는 동네가 말끔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데다가 동료들과 이런수런 수다를 떨며 웃기도 하니 세 시간이 1분처럼 지나갔다. 일은 지난해 11월 끝나 2월까지 긴 휴가(?)에 들어갔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희망을 간직한 채 새봄을 기다리며 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3월이 오면 행정복지센터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할 것이다.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다시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전방문의 해 관련 (29쪽)

대전시민들의 생각은?

1. 대표음식

칼국수(31.0%)

삼계탕(12.4%)

구죽도토리묵(11.6%)

두부두루치기(10.9%)

설렁탕(9.6%)

2. 관광명소

엑스포과학공원(13.5%)

오월드(12.9%)

한밭수목원(12.0%)

대청호반(10.7%)

뿌리공원(10.3%)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등이 폐쇄됨에 따라 이번 달 문화캘린더는 쉽니다.
계재된 문화행사도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호 선생의 삶, 음악극으로 탄생

대전예술의전당 ·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공동 제작 '단재의 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뜨거운 삶과 정신을 담은 창작 합창 음악극(Cantata Music Drama) ‘단재의 혼’이 탄생했다.

‘단재의 혼’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애국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합창극으로 제작한 ‘마지막 편지’(2018년), ‘그날의 외침 1919’(2019년)를 잇는 세 번째 작품으로 단재 신채호 <천고(天鼓) 발행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단재의 삶과 열정을 되돌아보면서 민족적인 자긍심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키워 주기 위해 기획됐다.

대서사적 합창 중심의 칸타타 형식의 종합 예술 장르로 제작된 ‘단재의 혼’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 천경필, 작곡가 정순도, 대본·작사 정준, 그리고 윤상호 연출 등 각 분야 최고의 예술가들이 무대를 만든다. 특히 천경필 예술감독은 그동안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대본 초안을 직접 집필해 음악을 구성했다. 2관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대합창의 사운드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장대한 음악, 여기에 무용과 연극, 노래에 더해지는 4면 입체 영상과 조명의 환상적 조합으로 스펙터클한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재의 혼’은 오케스트라의 서곡을 시작으로 ‘우리동네 신동이 나

타났네’, ‘만민공동회’, ‘러일전쟁’, ‘붓을 무기삼아’,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대합창’,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 ‘감옥’, ‘별이 지다’ 등 역사적 사실을 씨실로 신채호 선생의 삶과 정신을 날실로 엮어낸다. 천경필 감독은 “이 작품은 관객,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적 요소와 안무를 도입하고 영상과 음향의 효과를 더해 현실감 높은 무대를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재의 혼은 당초 3월 28일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오는 6월 20일(토)로 연기됐다.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언론인으로, 1880년 11월 7일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익동 도림리(현재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출생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고 1910년 중국 칭다오로 망명해 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전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 다큐멘터리 제작, 동상 건립, 단재 기념교육관 건립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70-8373



조선말 어진화가 소림 조석진 선생 100주기 특별전

3월 2일~5월 30일 성암미술관

조석진 선생은 조선말의 화가로 호는 소림(小琳),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1853년에 태어나 1920년 별세했다. 화원으로 영춘군수를 지내고 고종의 어진을 그려 정삼품(正三品)에 올랐다. 만년에는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산수, 인물, 화훼(花卉), 기명(器皿), 절지(折枝), 어해(魚蟹) 등의 각 분야에 재능을 발휘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번 특별전에는 '달마도해도'를 비롯해 '죽림칠현도', '어해도', '산수도 대련', '고사도 십폭병풍' 등이 공개된다.

822-7882

뮤지컬 '레베카'

4월 3(금)~5(일), 금19:30, 주말 14:00/19: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7만~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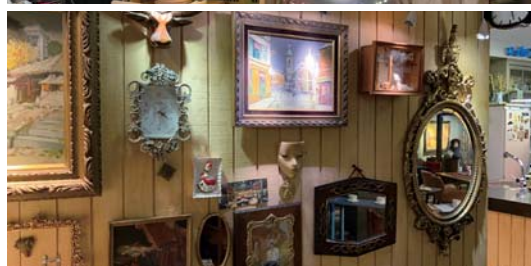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 〈레베카〉를 기반으로 스릴러, 로맨스 코드에 색채와 입체감을 붙여 넣어 탄생되었다. 미스터리한 사고로 레베카를 잃은 막심 드 윈터와 사랑에 빠지는 나, 그리고 나를 경계하는 댄버스 부인과의 숨막히는 갈등과 반전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킬링 넘버가 많은 뮤지컬로도 정평이 나 있다. 막심 드 윈터와 나의 감미롭고 로맨틱한 듀엣 넘버 '하루 또 하루', 레베카를 향한 댄버스 부인의 애절함을 담은 솔로 넘버 '영원한 생명', 댄버스 부인과 나의 '레베카'가 관객들이 사랑하는 대표 넘버들이다. 막심 드 윈터役に 류정한, 엄기준, 카이, 신성록이 캐스팅되었고 댄버스 부인役に 신영숙, 옥주현, 장은아, 알리가 함께 한다.

1588-0766



도시재생프로젝트 : 수집과 기억 사이

2월 14일~5월 17일 대전창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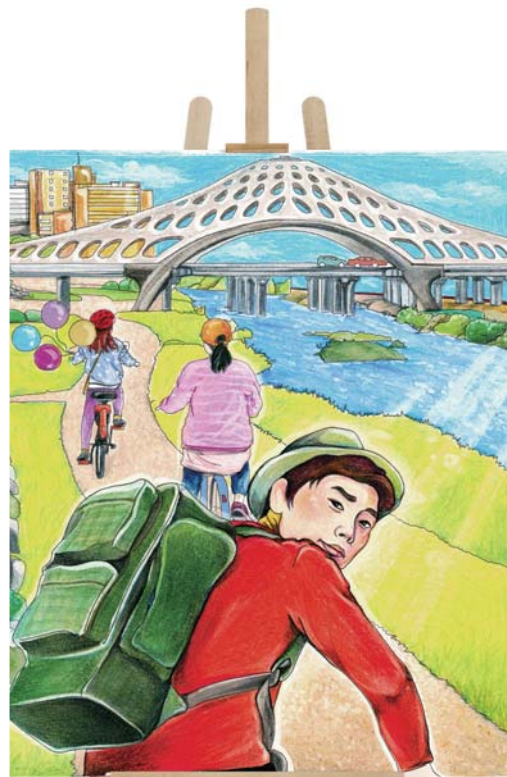


‘의, 식, 주’ 세 가지 주제로 원도심과 그 속에 공존하는 문화가치를 풀어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이번 전시는 그 첫 번째로 주(住)를 테마로, 전창곤 대전 프랑스문화원장과 이흥석 카페비둘 대표의 수집품을 소개한다.

전창곤 대전 프랑스문화원장은 프랑스에 살면서 모은 수많은 애장품을 대전으로 가져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 공간을 열었다. 중구 대흥동에 있었던 대전프랑스문화원은 1만여 권의 문화서적, 빈티지 컬렉션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시절부터 수집해 온 개인 수집품 외에도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작가 배운성의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이흥석 카페비둘 대표는 20여 년간 원도심의 역사와 함께하며 다양한 예술인들과 다원예술을 펼쳐왔다. 유럽에서부터 한국의 카페문화를 꿈꾸었던 그는 1996년 대흥동 신탄수박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의 비둘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여 년간 수집해온 LP판을 비롯하여 빈티지 만화책, 피규어, 프라모델, 미술품 등을 공개한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270-7370

대전을 색칠하자 그리GO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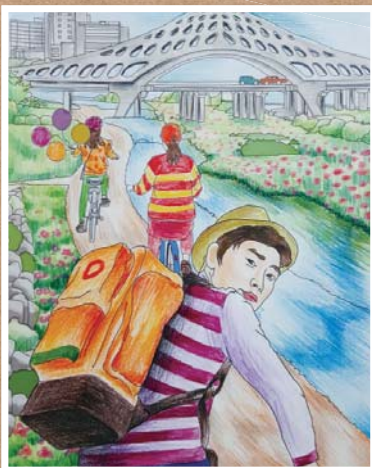
〈이츠대전〉 2020년 2월호 그리GO 대전 코너
‘목척교와 대전천’에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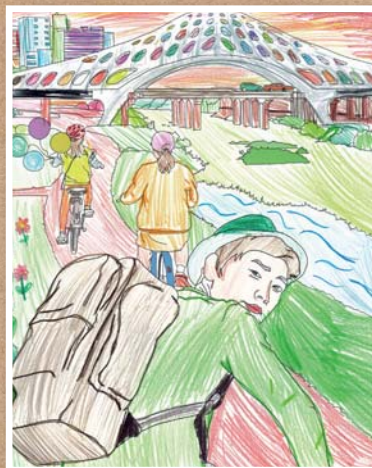
김인숙 동구 안샘1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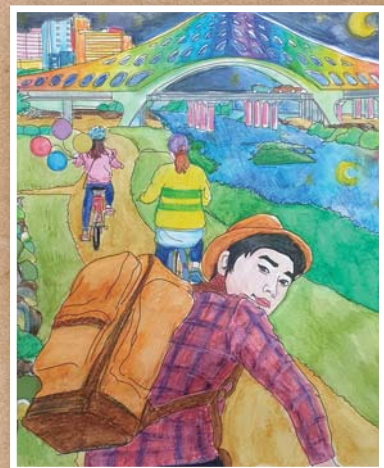
2월호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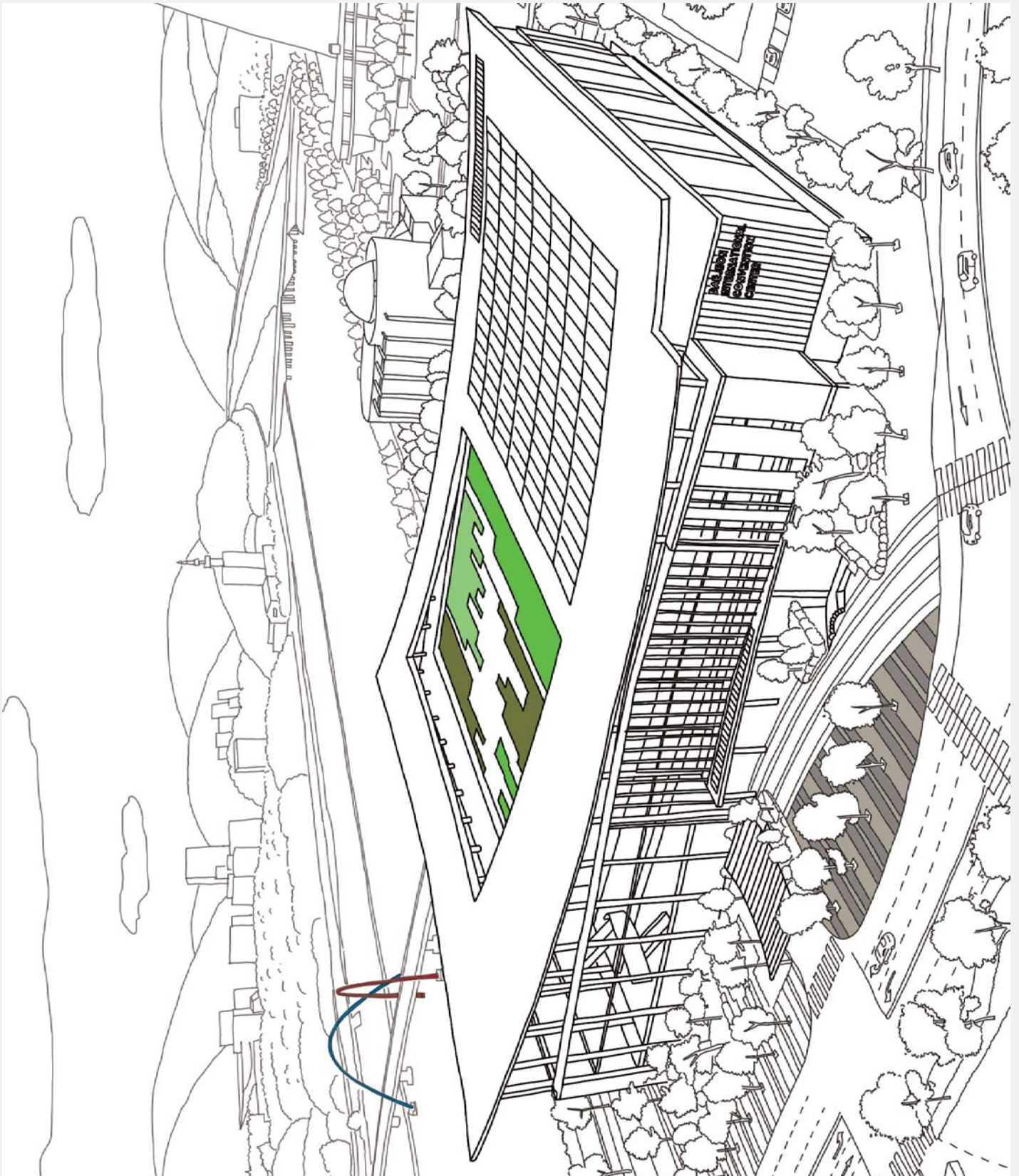
이정은 유성구 구즉로



연채원 서구 청사로



심은미 동구 대전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일러스트 이흥주 작가

응모방법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변인실 5층 시보편집실 담당자 앞 (전화번호, 주소, 본인명의로의 계좌, 주민번호 필히 기재)
이메일	hyj1974@korea.kr 완성된 작품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전화번호, 주소, 본인명의로의 계좌, 주민번호 필히 기재)
SNS	본인의 SNS(메이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컬러링 작품을 올리고 #이초대전 #그리GO 대전 #그리고 대전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검색을 통해 선정되시면 개별 연락드립니다.

※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보내주세요.

대전의 아름다운 명소를
여러분만의 색으로 입혀주세요.
나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색을 입힌 작품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다음달 <이초대전> 지면에 수록됩니다.

응모기한

3월 20일까지 도착 및 업로드 (이후에 도착한 우편 및 이메일, SNS에 업로드 된 작품은 부득이하게 접수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SOCCER DAEJEON HANACITIZEN

대전하나시티즌 팬을 위한 시티즌 팬사랑 적금

2020.03.02 ~ 2020.06.30



축구는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

판매기간 2020.03.02(월) ~ 2020.06.30(화)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회사별 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적립금액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원단위)

적립방법 및 월 납입한도

·정액적립식 :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월 100만원 한도)

·자유적립식 : 1회 1천원 이상 자유적립(월 100만원 한도)

금리 최저 연 1.2% ~ 최고 연 2.8%

(우대금리 포함, 2020.03.02 현재, 세전)

기본금리

구분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금리	연 1.3%	연 1.2%

우대금리 최대 연 1.5%

우대항목	내용
① 첫 거래우대 (연0.5%)	이 적금 가입당시 하나은행 계좌잔액이 ^(주1) 0원인 경우 *(주1) 입출금예금 + 적립식예금 + 가치식예금
② 청약가입우대 (연0.5%)	이 적금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③ 주거래우대 (최대 연0.5%)	이 적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아래 거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1회이상 충족한 경우 1. 건당 50만원이상 급여 입금 ^(주2) 2. 하나카드 대금결제(신용/체크) 3.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4.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주2)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대전광역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 후원

시티즌 팬사랑 적금 가입시 판매 좌수당 1천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대전광역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 후원금으로 제공됩니다. (판매기간 : 2020.03.02~06.30)

*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십시오.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0, 1)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일 2020-광고-1320호(2020.02.07)/CC브랜드 200211-0050